

34장. 희년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선언된 심판

34-36장의 기록은 시대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었다. 34장은 시드기야 때의 일이고 35-36장은 여호야김 때의 일이다. 34-35장은 유다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36장은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일과 바룩이 다시 기록한 사건을 기록한다. 37-38장은 다시 시드기야 때의 일이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와 시위대의 뜰에 갇힌 상태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맞이하게 된다.

34장	시드기야 말년 (9년, 588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35장	여호야김 (597년?)	레갑 족속의 모범
36장	여호야김 4년 (605년)	두루마리를 불태움, 바룩의 두루마리
37-38장	시드기야 말년 (9-11년)	예레미야가 토굴과 시위대의 뜰에 갇힘

이렇게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의 배경에서 그들이 언약을 어긴 사건과 두루마리를 불에 태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불순종에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1. 시드기야의 장래를 예언함 (34:1-7)

시드기야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에게 보내셨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불사를 것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호야김은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였으나(22:18-19) 시드기야는 긍정적인 임종을 약속 받은 셈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7절에서 알 수 있다. 바벨론이 유다의 성읍들을 거의 다 정복하고 라기스와 아세가만 아직 함락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목전에 있는 그 시점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더 무겁게 받아야 할 것이었다.

2. 노예를 다시 노예로 삼아서 언약을 깨뜨림 (34:8-22)

8절부터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 백성이 언약을 파기한 것을 기록한다. 무슨 동기에서 그렇게 하였는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예루살렘이 포위된 급박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거민은 7년째에 히브리 종을 해방시키라는 율법에 순종하여서 노예를 모두 해방시켰다(출 21:1-6; 신 15:12-18).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의 종 된 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맛보는 일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해방시켰던 자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다. 자유케 하였던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은 것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었다(34:16).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들은 종들에게 선언한 자유를 실행치 않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자유를 선언하고 시행하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그들을 칼과 염병과 기근에 붙이신다고 하셨다(34:17).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면서 체결한 언약의 예식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쪼개진 동물과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언약을 어긴 그들의 시신은 공중의 새와 짐승의 식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무렵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다. 그들은 포위 상황에서 포로를 해방시켰으나 바벨론 군대가 물러서자 해방시킨 자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다.

묵상과 실천:

새 언약의 약속과 파기한 언약에 대한 심판

희년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출애굽의 복음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바로의 종 된 데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히브리 종을 해방시키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출애굽의 복음을 사회적으로 선언하면서 “우리는 재

물로부터 자유로운 자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34-38장을 읽기는 쉽지 않다. 그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파기한 내용과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3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의 정신을 따라서 종을 놓아주었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무시하고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는 이야기가 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선언하고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분과의 언약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들을 칼과 염병과 기근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언약을 어긴 백성을 언약을 어길 때에 쫓개는 짐승으로 여기셔서 그들을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엄격히 공의를 선언하셨는데, 그분께서는 동시에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다. 31-33장에서 새 언약을 주신 후에 34장 이후에 멸망의 내용을 기록한다. 주님께서 심기 위하여서 뽑고, 세우시기 위하여서 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34장 익힘 문제

1.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거기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왕은 누구입니까? (2-5절)
2.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하였는데, 어떤 언약을 하였습니까? (8, 9절)
3. 시드기야 당시 이스라엘은 히브리 노예에 대해 자유를 선언하였는데 어디에서 그 언약을 세웠습니까? (15절)
4. 1) 시드기야 시대의 방백들과 백성은 노비와 관련하여 어떤 잘못을 하였습니까? (10, 11절)
 2)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이 언약을 어긴 이 사실로 인해 무엇이 더럽혀졌다고 하셨습니까? (16절)
 3)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간 누구를 다시 불러서 그 성을 불사르겠다고 하셨습니까? (21, 22절)